

광주·전남 의료계, 27일 전면휴진 동참 안한다

전남대·조선대병원 교수 비대위 “협상 과정 보고 추후 대응” 관망 범의료계 특위 “29일 투쟁방향 결정...전공의 피해 등 좌시 않을 것”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회(의협)가 예고한 27일 무기한 휴진에 광주·전남 의료계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전남 의료계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울특위) 회의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과 같은 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의료계가 예고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경파인 임현택 의협 회장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서울 아산병원이 다음달 4일 각각 무

기한 휴진 돌입을 예고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다른 ‘빅5’ 병원도 휴진카드를 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의료계에서는 오는 27일 휴진에는 참여하지 않고 울특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울특위는 의료계가 정부와의 의정갈등 장기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강대강으로 맞섰던 임 회장이 뒤로 빠지고 의대 교수, 전공의, 지역의 사회 등 의료계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지난 20일 의협산하 기구로 출범했다.

울특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29일 울특위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27일로 예고됐던 ‘전면적인’ 무기한 휴진은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울특위는 투쟁을 아예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의사회 관계자도 “세브란스병원 의대교수들의 휴진결정을 지지·존중하고, 추후 의·정 협상과 울특위의 회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같은 입장이다.

양 대학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수평선을 긋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단독 행보에 나서기 보다는 협상과정과 내용을 보고 추후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단, 울특위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더라도 당장 함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양 대학병원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일단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과정 등을 관망하면서 힘을 실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체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지해온 기조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양 대학의 교수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은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8일 전국의사총결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임 회장의 발언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할아버지 집 놀러온 영광 지적장애 초등생 주택화재로 안타까운 사망

영광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지적장애를 가진 손자가 사망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화상을 입었다.

24일 영광군 흥농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A(11)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군과 함께 집 안에 있던 A군의 할아버지 B(87)씨와 할머니 C(80)씨는 어깨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대피했다.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A군은 주말마다 조부모 집에 찾아왔고 이날도 조부모집에서 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조부모는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A군은 작은 방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기를 발견한 조부모는 A군이 머문 작은 방 문을 열고 확인했지만, A군이 없어 대피한 것으로 보고 집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A군은 안방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가로등·안전장치 없는 도로 건다 하천 추락 사망 법원 “지자체 20% 책임”

가로등과 안전장치가 없는 보도에서 술을 마신 보행자가 추락해 숨졌다면 지자체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

법원은 지자체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보행자의 주의의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추락사고로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총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무안군에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19일 밤 9시께 무안군 정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건다 하천에 추락해 2달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A씨 과실 30%를 공제하고 총 2억 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끝에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난간이 설치된 점을 종합하면 지자체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면서 “보행자가 음주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행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의 주장은 1심과 동일하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린이 시설 종사자 심폐소생술 교육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광주지역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24일 오후 광주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참가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보성 육군 사격장서 박격포 불발탄 폭발 사고

병사 1명 부상 병원 옮겨 치료

보성에 있는 육군 실거리사격장에서 박격포탄 폭발사고로 병사 한 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육군 제31보병사단(31사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보성의 실거리사격장에서 81mm 박격포 측사탄(훈련용탄) 훈련 중 불발탄이 폭발해 A(22) 상병이 다쳤다.

31사단 소속인 A상병은 오른 손 검지에 개방성

골절상, 검지와 중지 사이 파열 손상 등을 입고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상병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응급수술 인력이 없어 광주지역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상병은 박격포 불발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담양군수 경선후보 허위 비방 60대 항소심 벌금형→징역형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담양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항소심에서 가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담양군수 선거에 나선 모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 경선을 앞둔 2022년 4월 27일 새벽 12시 30분께 경쟁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게시글에는 상대 후보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학력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누군가 (내)노트를 무단으로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했고, 허위사실도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 20분 전에 A씨가 동일 내용을 타인에게 메일로 보낸 점을 고려하면 타인이 게시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낮고, 게시글 내용도 모두 허위로 보인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범행이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